(제 2 강)

안녕하세요? 스피치 컨설턴트 우지은입니다.
성공 취업을 위한 면접 스피치 제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면접을 보고나면, 어떤 점이 가장 아쉬움이 남으셨나요?
제 예전 기억을 더듬어보면요, 취업을 준비하고 가슴 졸이던 시간에 비교하면 면접시간은 정말 순식간에 끝나버리고 만다는 사실이 가장 아쉽더라구요.
특히 1차 면접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몇 마디 하지도 못한 것 같은데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 짧은 시간동안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지 살펴보지 않고, 면접에 임한다는 건...정말 아무 준비 없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사람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면접은 면접관과 지원자의 첫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이 형성이 되는데요,
** 메라비언의 법칙 PPT **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에 미국의 심리학자 앨버트 메라비언(Albert Mehrabian)이 발표한 "메라비언의 법칙 The Law of Mehrabian"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시각이 55%, 청각이 38%, 언어가 7%에 이른다는 내용인데요, 시각이미지는 자세·용모와 복장·제스처 등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말하구요, 청각은 목소리의 톤이나 음색(音色)처럼 언어의 품질을 말하고, 언어는 말의 내용을 말한다.
보시는 것처럼 첫인상을 형성할 때, 외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면접에서 사실 외적인 부분은 코디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를 뽑는 게 아닌 이상, 회사원이미지에 맞는 단정한 옷차림, 단정한 헤어스타일, 튀지 않는 소품 등으로 꾸미면 됩니다. 면접관들의 시선을 사로잡겠다는 생각에서, 의상으로 튀고 싶어하는 지원자들이 많은데, 나이가 좀 있으시고 보수적인 면접관들 눈에는 곱게 보이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반짝이는 큰 귀고리라든지, 큰 버클이 있어 반짝이는 구두... 이런 것들은 시선을 분산시키게 되겠지요. 절대 의상이나 소품으로 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반짝거려야 할 것은 단 하나 뿐입니다. 뭘까요? //// 바로, 오로지 여러분의 눈빛!!!!!입니다.
반짝이는 눈빛으로 면접관과 눈을 맞춰야 합니다. 아이컨택(eye-contact)은 상대방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신뢰감을 형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처음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눈빛으로 자신의 열정과 자신감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면접관이 여러 명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할 때, 일단 먼저 질문한 면접관과 아이컨택 한 후 다른 면접관에게도 골고루 시선을 나누어주는 것이 좋다. 시선을 여러 사람에게 줄 때는 호흡단위나 단락단위로 적절히 나누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 시 외적인 부분에서의 감점 요인을 보면,
** 면접 시 감점요인 PPT ** 남성/여성
남성 같은 경우 사나운 눈매->지저분한 피부-> 무표정->단정치 못한 머리모양
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여성의 경우 무표정-> 짙은 화장-> 사나운 눈매->지저분한 피부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부는 평소에 관리를 꾸준히 해주고, 자연스러운 화장을 하는 것으로 감점요인을 막을 수 있겠구요,

** 스마일 라인 PPT **무표정이나 눈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꼬리를 올리고 동시에 눈도 함께 웃는 연습을 함으로써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눈도 함께 웃을 때, 눈꼬리가 내려가게 돼서 면접관에게 좀 더 선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표정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극도의 긴장감을 감추면서 약간의 여유와 함께, 부드러운 듯, 성실하게 또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미지를 읽게 만들기 위한 표정관리가 중요한데요,
표정 만들기를 위한 연습은 남성이 근육 키우기를 위해 헬스기구로 꾸준히 단련하는 것과 같이 꾸준한 연습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평소 의식적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긴장되는 면접장에서 자연스러운 표정을 연출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표정이 평소 얼마나 무뚝뚝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변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물어보아서, 좀 더 밝고 활기찬 표정을 만드는데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큰 감점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가짐이나 자세, 태도 역시도 어른들 앞에서 우리가 예의를 표하듯이 면접관에게도 정중하고 예의바른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옷차림은 단정하고 깔끔하게, 태도는 자신감이 있으면서도 예의바르게...**
자...이렇게 외적인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자기 이미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메라비언의 법칙에서도 보듯이, 외적인 요소 다음으로 중요하게 차지하는 것이 목소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가 어떤 목소리로, 어떻게, 어떤 내용의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중의 80% 이상이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 만으로 그의 신체적, 성격적 특성을 규정짓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모만 봤을 때는, 그리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입을 열고 말을 시작하자, 목소리는 맑고 분명하구, 너무나 지식도 풍부하고, 겸손하고,...이럴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알고 지내고 싶다...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 지식, 성격 등등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면접에서 스피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실제로 면접관들이 말하기를 호감 가는 지원자와 그렇지 않은 지원자를 가장 크게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스피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스피치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라는 상황에 처했을 때, 많은 지원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스피치가 가장 힘들었어요...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좋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람들이 제 발음이 너무 안좋대요.."등등 고민을 쏟아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음성을 좋게 하는 방법과 면접에서 유용한 대화 테크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음성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 효과적인 음성 훈련법 PPT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목소리는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면서 확실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목소리는 충분히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효과적인 음성훈련법 7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①자세를 바르게 한다: 우리가 구부정한 자세로 말을 할 때와 허리와 가슴, 등을 바르게 편 상태에서 말을 할 때...나오는 소리와 발음이 확연히 다릅니다. 서 있는 자세라면 양쪽다리에 체중을 균형 있게 배분을 하고요, 엄지 발가락에 약간 힘을 주고, 또 복근에 약간의 힘이 들어간 상태로 '나는 자신있다..당당하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바르게 섭니다.
면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많은 지원자들은 긴장을 하기 때문에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거나 위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경직된 소리만 뻣뻣하게 나옵니다.
어깨와 목에 힘을 뺀 상태로, 편안하고 바른 자세에서만이 좋은 음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세는 그 사람의 심리적 태도를 대변합니다. "나 떨고 있습니다. 무척 긴장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그대로 면접관에게 보이시겠습니까? 안되겠지요~~나는 이런 긴장된 상황에서도 의연합니다~~라는 자세를 보여줘야, 자신감에 찬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②복식호흡을 한다: 우리가 평소에 의식하지 않고 하는 호흡은 흉식 호흡입니다.
여러분,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슴과 어깨가 올라가고, 배는 쑥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흉식 호흡입니다. ** 호흡 PPT **
그러나 이와는 반대의 호흡이 바로 복식호흡입니다. 숨을 들이마셨을 때, 가슴이 아닌 배에다가 공기를 채우는 것이죠. 공기를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풍선처럼 빵빵해지겠죠. 그리고 가슴과 어깨는 그대롭니다. 그리고 내쉬면...배에서 공기가 나가므로 배가 다시 홀쭉해집니다. 자~~~들이마시고, 내쉬고~~들이마시고, 내쉬고~~우리가 흉식 호흡에 오랫동안 익숙해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복식호흡을 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긴장되는 상황에서 심호흡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때 심호흡은 복식호흡을 말합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 긴장이 완화됨과 동시에 정신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복식호흡은 흉식 호흡보다 폐활량 30% 가량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

에, 한 호흡으로 더 길게 안정적인 호흡으로 말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맑고 힘 있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문 방송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상당히 맑고 또렷또렷하고 힘이 실려 있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복근의 힘으로 공기를 조절하는 복식호흡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달이 잘 되면서도 그들의 목소리에서는 전문성과 신뢰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이 호흡법을 익혀서 실제로 면접시에 적용한다면, 훨씬 여유 있고 힘차고 맑은 목소리를 내게 돼서 면접관에게 자신감 넘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지원자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그 호흡을 이용해서 말을 하면서 숨을 내쉬는 복식호흡...습관이 되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③정확한 발음 연습을 한다: 혀 짧은 소리를 낸다든지, 이중모음을 정확히 발음하지 않는다든지, 웅얼거리는 듯이 말해서 무슨 발음인지 알아들을 수 없으면, 면접뿐만 아니라 모든 스피치 상황에서 좋은 인상을 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건요, 많은 사람들을 지켜본 결과 발음은 금세 고쳐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발음을 잘 못하는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그저 쉽고 편하게 대강대강...뜻만 통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입을 작게 벌리고 혀를 움직이지 않고 발음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조금 귀찮더라도 여러분의 입을 불편하게 만드십시오. 발음을 만드는 기관을 조음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입술, 혀, 윗턱, 아래턱 등 정확한 발음을 만들 때 움직이는 기관들을 최대한 많이 움직이십시오.

자, 정확한 발음의 비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조음기관을 잘 활용하라~!!!! 최대한 입을 과장해서 크게 벌리고, 입술, 혀, 윗텃, 아래턱이 뻐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발음이 잘 안되는 사람들은..자신이 얼마나 입을 작게 벌리면서 답답하게 말을 하는지, 스스로는 잘 모릅니다. 이제는 입을 크게 크게 벌리고 혀를 많이 움직여서 발음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소리도 시원시원하게 나가니까요,
면접을 보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멋진 표현으로 좋은 답변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확한 발음 때문에 면접관에게 전달이 안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발음이 좋지 않다면, 지적인 이미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좋은 발음을 위한 연습 방법은요, 조음기관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매일 10분씩이라도 글을 소리 내서 꾸준히 읽는 겁니다. **** 자모음표 PPT**** 보시는 것처럼 자모음표를 읽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글들을 소리 내서 크게 읽는 겁니다. 보통 신문기사에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시사상식 공부도 할 겸, 신문을 보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를 정확하게 발음한다는 생각으로 읽다보면, 잘못된 발음은 금세 고칠 수가 있습니다.

④ 자기 목소리를 녹음 한다 : 내가 듣는 내 목소리는 목안에서 공기를 통하지 않고 내 귀의 달팽이관으로 들어온 소리입니다, 그런데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서 공기와 섞이면 말소리가 달라지지요. 그래서 내가 말할 때 듣는 내 목소리는 다른 사람이 듣는 내 목소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본 후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요 소형녹음기에다가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통은 자신의 목소

리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낭독한 목소리를 처음 들으면....대부분들의 반응이 "목소리가 너무 이상하다..듣기 싫다..내 목소리 아닌것 같아요.."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자꾸 들으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잘못된 점을 찾고 교정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면접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녹음해보십시오. 아마도 중언부언 핵심 없이 말하는 습관이나 말끝을 흐린다거나 말이 끝나지 않고 여러 문장이 계속 이어지는 습관 등등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바로 볼 수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고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⑤음성을 생동감 있고 다양하게 사용한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일직선으로 쭉 뻗어있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와, 구불구불한 국도를 달릴 때, 언제 더 졸립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 그러하겠지요. 스피치도 마찬가집니다. 면접을 보면서, 만일 아주 일정한 톤으로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간격으로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재미없고 지루해서, 면접관은 여러분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용에 따라서 말의 톤이나 높낮이, 속도 등을 다양하게 사용할 때, 그 말에 생동감을 불어 넣게 되지요. 어떻습니까? 제 목소리가 좀 생동감이 있게 들리십니까? 이렇듯 강조할 곳은 좀 강하게, 혹은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중요한 단어를 말하기에 앞서서 //// 약간의 포즈를 두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포즈를 두게 되면요, 사람들은 그 다음 말이 궁금하기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포즈 기법을 활용하면//// 세련된 화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면접을 보면서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 말을 하기에 앞서 1,2 초 정도의 포즈를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 이 회사를 지원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식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약간의 포즈를 두면서 면접관의 시선을 끄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곳은 좀 빠르게 넘어가는 방법을 구사하시면,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스피치를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낭독을 통해서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를 하면서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⑥ 닮고 싶은 목소리를 모방한다 : 보이스 컨설팅을 받고 싶어서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길 하십니다. 아나운서 000 처럼 말하고 싶어요. 그런 목소리를 갖고 싶어요..라구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 닮고 싶은 목소리가 TV나 라디오에서 나올 때 똑같이 따라해보세요...라구요. 저 역시도 학생시절, 제가 존경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녹음해놨다가 똑같이 따라하는 연습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날 오랜 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더니, 너..목소리랑 말투가 꼭 아나운서같애...라는 얘길 하더라구요.

특히 툭툭던지는 말투라든가, 끝맺음을 확실하게 맺지 못하는 말투를 가지신 분들은 이 모방하기 훈련으로 많은 부분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⑦ 음성도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전화 목소리만 듣고도 그 사람의 컨디션이 어떤지, 기분이 어떤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몸 전체가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기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결코 좋은 목소리를 만들기 어렵겠지요. 따라서 면접 전날에 자신의 몸의 상태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 잊지 마시구요...그리고 술과 담배가 목에 좋지 않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텐데

요, 전날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경험 다들~ 있으실겁니다.
그리고 면접 전에는 반드시 목에 좋지 않은 음식들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들 수가 있는데요. 커피나 녹차 등의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면 목이 상당히 건조해지면서 맑은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유제품도 좋은 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좋지 않습니다. 유제품에 있는 끈적끈적한 물질이 우리 성대에 붙어서 탁한 소리를 만들어 내거든요. 그럼 뭘 마시면 좋으냐,,...하면 바로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물....그것도 따뜻한 물을 마셔서 성대를 촉촉하게 편안하게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또 면접을 기다리면서 긴장하게 되면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면접을 보러 갈 때, 보온병에다가 따뜻한 물을 넣어서 가지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자, 좋은 목소리의 비밀...간단하지요? 복식호흡법을 익히고, 배에서 나오는 큰 목소리로 여러 가지 글들을 낭독해 보기도 하고, 아나운서나 성우의 목소리를 따라서 흉내도 내봅니다. 또 그것을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이지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천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로 책을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5분도 채 되지 않아 지쳐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간단하지만 힘든 연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 했을 때, 분명 큰 변화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좋은 목소리를 위한 7가지 방법 기억하시구요,,,
자, 다음은 면접에서 유용한 대화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면접에서 유용한 대화테크닉 PPT***

면접을 너무나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어렵게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면접도 어디까지나 스피치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말로 여러분의 의사를 전달하고, 또한 말로서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자리이지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실제 면접 장소에서는 면접관의 태도와 분위기에 압도가 되어서 말이 쉽게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특히 중역이나 사장 같은 높은 지위의 사람이 나와 있으면 더욱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면서 말하려고 했던 내용의 10분의 1도 전달하지 못하고 허탈하게 면접장을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면접관 즉, 회사원과의 대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테크닉은 바로...
1. 면접관을 회사원이라고 생각하자.
면접관과의 대화는 그 나름대로의 어법, 그러니까 회사원의 말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 어미를 '했는데요'가 아닌 '했습니다'로 끝내는 어법을 입에 붙도록 익혀야 합니다.
또한 학생 때 주로 사용하던 학생용어, 유행어 등은 사용해서는 안되겠구요, 특히나 어린 아이와 같은 귀여운 말투라든지, 끝을 흐리는 등의 좋지 않은 말투로 이야기 한다면, 절대 면접관들도 여러분을 같은 회사원으로서 신뢰하기는 힘들겠지요.
말 전체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어미처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소 딱딱하게 들릴지

라도 어미처리를 네. 그렇습니다! ~~이러이러 합니다!.....라고 말끝을 확실히 하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했거든요, 그랬거든요"라는 비즈니스와는 어울리지 않는 어투가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 면접관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은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부터이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평상시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비결은 바로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입니다.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관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열심이 듣고 있다는 인상은 면접관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는데요,
면접관과 눈을 맞추고, 또 면접관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경청하고 있는 모습. 이런 지원자에게 면접관이 나쁜 인상을 갖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이야기를 경청하고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빨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야기를 잘 들으면 질문의 목적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알고 대답하는 것과 건성으로 이해하고 대답하는 것은.. 그 답변의 수준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하는 패턴을 확실히 익혀둡시기 바랍니다.

3. 평소보다 약간 큰 듯한 목소리로 천천히 답변한다. ** 면접시의 목소리 PPT **

적극적이고 활력이 넘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서 무턱대고 큰 목소리로 말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 역시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면접장에서의 목소리는 면접관과의 거리를 생각해서 상대에게 확실히 들릴 정도의 목소리면 되는데, 보통 약간은 거리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평소 대화시보다 약간 크게 하는 정도가 좋겠습니다. 약간 크게 또박또박 발음을 해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작다는 것은 그 하나만으로도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알아듣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내용도 잘 전달이 되지 않지요.
그리고 남성들 같은 경우는 목소리 톤이 낮아서, 자칫 웅얼거리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 톤이 낮은 사람은 약간 톤을 높여서 말하는 것이 훨씬 분명하게 전달이 잘 됩니다.
그리고 면접장에서는 누구나 긴장을 하기 때문에, 긴장을 하면 당연히 호흡이 가빠지면서 말이 빨라집니다. 말이 빨라지면 발음이 꼬이게 되고, 그래서 더 당황하게 되고...또 빨라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답변을 제대로 하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조금은 천천히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듣기 쉬운 속도는 1분에 270자를 읽는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조금 느리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차근차근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빨리한다고 해서 면접관이 칭찬하거나 말을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약간 천천히 말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신중해보이고, 자기 호흡과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침착하게 생각한 답변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자마자, 바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2초 정도의 여유시간을 두고서 대답을 해야, 더욱더 신중한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면접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Q & A시간입니다.
어떤 질문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질문) 전 면접을 볼 때면, 너무 많이 긴장이 되거든요.
어떻게 긴장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네..누구나 중요한 면접상황에서는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전에 면접을 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면접 모의 훈련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인사하고, 앉고...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까지도 몸으로 익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많은 면접관들이 말하길...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합격인지 아닌지 판가름한다고 하는데, 능력 있고 자신감에 찬 사람은 들어올 때의 걸음걸이도 다르고, 자세도 바르고 눈빛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서 자신의 이름만큼은 정말 힘 있게 큰 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실제 면접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말만큼 쉽지가 않거든요. 이것도 충분히 연습을 해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면접이라는 상황에서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앞서 배운 호흡, 발성, 발음에 신경 써서 의식적으로 해봄으로써 대화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화를 나누는 모든 장면 장면이 연습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다는 점....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소리 훈련법과 대화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다음 시간에는 면접에서는 대체 무엇을 물어보는지, 질문의 시스템에 대해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가지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